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07

세계의 끝 윈더랜드, 책들의 이상향을 찾아서

백창화 숲속작은책방 대표

39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책의 귀환이라는 기현상

안병일 책방시점 대표

세계의 끝 원더랜드,
책들의 이상향을 찾아서

백창화

숲속작은책방 대표

책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

어린이책 출판은 조악하기 짝이 없었고 그림책이라는 건 존재도 알지 못했던 시절. 텔레비전이 있는 집도 동네에 한두 집이었고 유일하게 라디오가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었다. 이어폰이란 게 없던 시절,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불륨을 죽인 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노래들과 라디오 극을 통해 내가 사는 넓은 세상을 상상했다.

성년이 되고 내 맘대로 세상을 돌아다닐 최소한의 자유가 허락되었을 때 가장 즐겨 가던 곳은 대학 도서관, 서울 종로에 있던 드넓은 서점, 그리고 음악감상실이었다. 학교와 집을 오가려면 광화문과 종로통을 거쳐야 했고, 매일매일 그 거리에 내려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지금은 없어진 종로서적, 그리고 교보문고는 영혼의 집과도 같은 곳이었다. 가까이 사직도서관과 정독도서관도 있었지만,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으로는 서점이 좋았다.

종로서적의 1층부터 5층까지 좁은 계단을 한 층 한 층 오르며 내가 살 수 없는 수많은 책의 표지를 손가락으로 훑어 갈 때 심장이 뛰었다.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로 받은 첫 월급을 가방에 챙겨 넣고 교보문고로 달려가 낫을 놓고 책을 고르다 봉투째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의 황망함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끝이 시리다. 하루 종일 백화점에 서서 얼굴 근육이 아프도록 웃으며 내 월급보다 비싼 옷을 팔고 받은 소중한 돈이었다. 매일 드나들면서도 한 번도 살 수 없었던 고급 노트와 펜, 좋아하는 책을 사고 싶어 흥분된 맘으로 달려온 그곳에서 순식간에 빼앗겨 버린 어린 꿈도 지금은 추억이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언제나 사방 벽면이 책으로 가득한 집에 살았다. 창가엔 햇살이 따스하고 주전자엔 차가 끓고 있는 방의 한가운데에 책상을 놓고 앉아 글을 쓰는 모습 외에는 나의 미래를 달리 그려 보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내 집을 갖게 되자 처음으로 그 꿈을 이루었다. 거실 벽 전체를 책꽂이로 채우고 일반 책상 두 배 크기의 커다란 책상을 놓고 앉았을 때 책과 함께하는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 집의 거실은 곧 동네 도서관이 되었다. 밖에 나가 뛰어놀기만을 좋아하는 아들을 책으로 붙들어 두기 위해 아이 친구들을 불러들였다. 모

아 놓고 책을 읽어 주었고, 원고지를 주고 글쓰기를 시켰다. 돈도 받지 않고 마을 아이들과 읽기와 쓰기를 한다고 하니 동네 학부모와 아이들이 기뻐하며 모여들었다. 응원에 힘입어 집 옆의 건물 한 칸을 세내어 집에 있던 책꽂이와 책을 들고 나갔다. ‘작은도서관’ 간판을 처음 달던 날은 동네 잔칫날이었다. 이웃 주민들이 해 온 떡과 음식을 나누며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길 바랐다. 그렇게 십년. 아이들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게 되었을 때 나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 도시에선 이루기 힘든 꿈꾸는 책들의 마을을 만드는 것.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다정한 책들의 속삭임 속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찾는 공간. 그 마을에선 아이들이 책과 함께 뛰놀며 때로는 그곳에서 길을 잃어 보기도 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방문했던 원더랜드를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곳. 책들이 버려지지 않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계의 끝, 원더랜드. 그곳에 살고 싶었다.

꿈의 자락을 따라 충청북도 괴산, 머나먼 시골 숲속에 책으로 가득한 집을 만들고 피리를 불었다. 피리 소리 따라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끌려 왔다. 매일매일 책을 읽고, 책을 권하고, 함께 나누고 글을 쓰며 살아왔

던 ‘숲속작은책방’의 시간들. 그렇게 또 한 번의 십 년 세월이 갔다. 그러나 아직 내 마음속 원더랜드, 내가 꿈꾸었던 책들의 이상향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대신 여전히 길 위에서 꿈을 꾸고 있는,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이들을 만났다. 그들과 때론 한탄을, 때론 응원과 격려를 나누며 끝이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숲속작은책방 전경
출처: 필자 제공

코로나19로 더욱 참혹해진, 책을 둘러싼 환경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는 불과 두 해 만에 우리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얼굴의 절반을 가린 삶, 낮모르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는 경계의 삶, 만나는 모든 이들을 전염병 바이러스의 숙주로 의심하는 삶. 이런 삶의 중심엔 공감하고 소통하고 토닥여 주는 휴머니티가 들어설 틈이 없다. 즉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은 ‘인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의 고유한 품위와 자존이다. 전염병은 어떤 것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그간 우리가 지키려 노력해 왔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무릎 꿇렸다.

지역 서점들의 현실은 더욱 참혹하다. 2000년대 이후 점점 축소되어 가는 종이책 출판 시장과 오프라인 동네 서점들은 코로나 2년 동안 더 빠르게 무너져 갔다. 대신 초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덩치를 불러 나갔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2,846곳이던 전국 서점 숫자는 2019년에 1,976개로 줄어들었다. 십 년 동안 천 곳 가까이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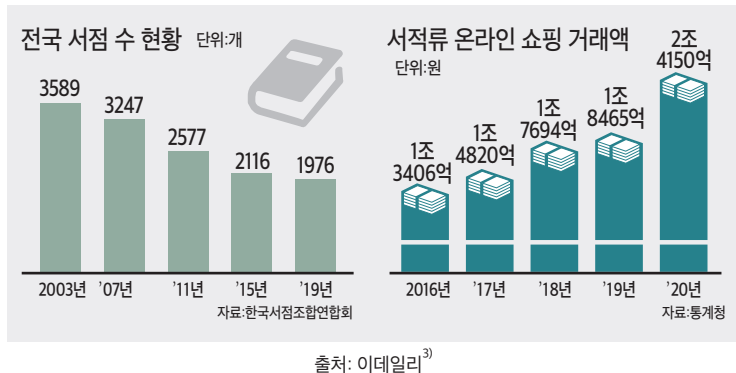
을 닫고 사라진 것이다.¹⁾

그러나 이렇게 오프라인 지역 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동안 온라인 서적 유통은 급속하게 늘어나 2016년 1조 3,406억 원이던 온라인 서적 쇼핑 거래액이 2020년엔 2조 4,150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코로나로 휘청였던 지난 두 해 동안의 통계를 조사해 보면 이 흐름은 더 급격하게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처음으로 오프라인 서점을 앞지른 건 2016년이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출판시장 통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서점 3사의 매출액은 8,701억 원(예스24 4,085억 원, 알라딘 2,849억 원, 인터파크도서 1,767억 원)으로, 교보문고(5,255억 원), 영풍문고(1,333억 원), 서울문고(1,170억 원)의 총 매출액 7,758 억 원을 앞질렀다.²⁾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KPIPA출판산업동향(2020년 상반기)*.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https://www.kpipa.or.kr>

2) 박상훈. (2017.4.28). 온라인 서점 매출, 기존 대형 서점 매출 추월.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170428075908407#PL2>



오프라인 서점의 대표 주자인 교보문고조차도 2020년부터는 온라인 부문 매출액이 오프라인 매출액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2020년 출판 시장 통계’에 따르면 교보문고의 경우 그 전해 오프라인 부문 매출액은 2,5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온라인 부문 매출액은 3,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3%나 증가했다.⁴⁾

3) 김은비. (2022.01.07). 온라인에 밀리고 코로나19까지... 줄줄이 문닫는 동네서점.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32195424&mediaCodeNo=257>

4) 대한출판문화협회. (2021). *2020년 출판 시장 통계*. 대한출판문화협회. <https://www.kpa21.or.kr>

교보문고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도서 판매 동향 및 베스트셀러 분석 결과⁵⁾’를 보면, 모바일(33.4%)과 웹(22.9%)을 합친 온라인 매출은 56.3%로, 오프라인(43.7%)을 크게 앞질렀다.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앞선 것은 이 서점이 온라인 매출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코로나19 사태 탓에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 독서실태조사⁶⁾’에 따르면 도서 구입처 가운데 온라인 점유율은 2011년 17.8%에서 2019년 30%로 증가했고, 동네 서점은 25.4%에서 9%로 곤두박질쳤다.

5) 교보문고. (2020). 2020 종합 상반기 베스트셀러 경향분석.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event/2020/firstBest.jsp>

6) 문화체육관광부. (2020.4.20). 201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policy/research



새롭게 등장한 ‘독립서점’이라는 현상

이렇듯 온라인 시장의 압도적 성장으로 오프라인 서점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한 편에선 2010년대 이후 놀랍게도 ‘서점계의 반란’이라고 부를 만큼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매장 규모 10~30평 내외의 소규모 구멍가게 형태의 ‘독립서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독립서점’이란 대규모 자본이나 큰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서점 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작은 서점을 말한다. 서점 주인의 취향이 구비하는 도서의 기준이 되다 보니 서점별로 특정 영역에 특화된 경우가 많다.

2010년대 이후 새로 등장한 이들 독립서점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성이다. 기존의 대형 서점, 혹은 지역 중형 서점들과 차별화되는 대표적 특징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서점들은 학습참고서를 비롯해 유아·아동 도서에서 성인 도서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으로 출판물 전 종을 취급했다. 도서관처럼 많은 책을 갖추고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특정 분야에 취미를 가진 마니아 독자들, 혹은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맞춤으로 안내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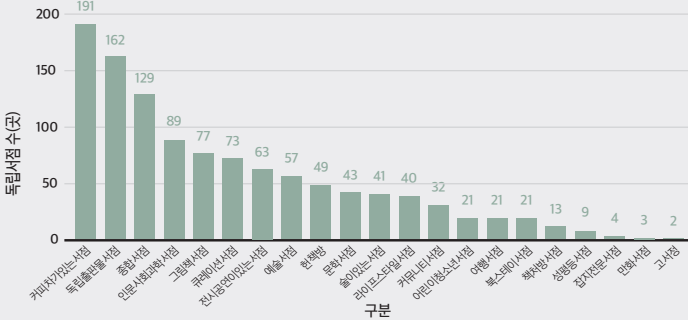
고 싶거나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초보 독자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대로 독립서점들은 작은 규모에 공간도 좁아서 많은 책을 소장 전시하기가 어렵다. 대신 특정 분야에 조예가 깊거나 전문성을 가진 책방 지기들이 자신의 취향을 공유하기 위해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그림책만 전문으로 판매하거나, 철학·역사·예술·문학 등 특정 장르에 집중하는 서점들이 생겼다.

고양이 책과 용품 각종 굿즈를 판매하는 고양이 책방, 타로 점을 봐 주고 현재 심리 상황에 적절한 책을 추천해 주는 심리상담 책방, 한 발 나아가 1대1 상담을 통해 방문객에게 꼭 필요한 책을 처방해 주는 책방들도 생겼다. 혼자 조용히 앉아 술과 책을 즐길 수 있는 술 책방에선 작가 헤밍웨이가 사랑한 술,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등장하는 술 등 문학 속의 술을 메뉴로 내놓고 있다. 책방에서 하룻밤 자면서 오롯이 책방을 독차지하고 밤새 책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숙박형 책방, 이른바 ‘북스테이(Bookstay)’ 책방도 생겼다.

전국 취향별 독립서점 수

Nationwide Bookshops Ratio by Taste



출처: (주)동네서점⁷⁾

이런 독립서점들이 2021년 1월 현재 731곳이다.⁸⁾ 나는 이렇게 늘어나는 소규모 독립서점들이 곧 우리 사회 문화 다양성의 지표이자 든든한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7) <https://market.bookshopmap.com>

8) (주)동네서점은 매해 분기별로 새로 생기는 독립서점들을 조사하고 분석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본 자료는 2021년 1월 현재 업데이트된 현황을 참조했다.

■ 전통적인 서점의 역할 대신 새로운 취향과 가치를 공유하는 독립서점

서점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서점은 우리 사회의 지식과 정보의 집합체이며 토론의 장이었다. 사람들은 서점에 모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고 사회의 변화를 읽었으며, 자연스럽게 이곳은 학교 밖 학교의 역할을 했다. 1970-80년대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아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의 서점은 지식인과 대중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학습하며 미래를 토론하던 산소 호흡기와 같은 곳이었다. 독재정치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구현되자 서점은 일제히 풀려난 금서들로 기지개를 펴고 1990년대 문화의 황금시대에 밀리언셀러들을 쏟아 내며 대중의 대학이 되었다.

그러나 이어진 디지털 혁명에 밀려 2000년대 이후 종이책은 몰락의 아이콘이 되었고,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서점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동네마다 구멍가게처럼 존재하던 수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았고, 드디어 2천 개 이하로 그 숫자가 떨어지며 서점은 몰락의 길을 걷

는 듯이 보였다.

그런 서점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곳이 바로 독립서점들이었다. 이들은 곳곳에 마치 문화 게릴라들처럼 공간을 열고 소규모 취향의 공동체들을 복원해 가기 시작했다. 불특정 다수가 잠시 왔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취향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만들고 소통하며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살롱(salon)’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10~20명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작가 북토크, 인디 음악인들의 소규모 공연과 전시, 정기적인 책 읽기 모임 등이 생겨났고, 마치 익명의 존재인 것처럼 도시에서 외롭던 이들은 이곳에서 친구를 만들고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독립서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독립서점을 정의하는 이름과 내용에도 조금씩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 원래 ‘독립서점’이란 이름은 영어의 ‘인디펜던트 북스토어(independent bookstore)’에서 왔다. 즉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 서점들과 달리 자본과 권력의 힘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꾸려 가는 독립적인 서점이라는 뜻이다. 대형 서점과 반대되는 의미로 붙인 포괄적인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서점들은 처음 생

겨났을 당시 대개 일반 서점에서 유통되는 단행본 서적이 아니라 개인 창작자가 직접 제작해 유통하는 ‘독립 출판물’을 주로 취급했다. 기성 출판사의 상업적 출판물이 아니라 소규모 창작물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이런 독립 출판물 제작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든 서점들을 ‘독립서점’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내 그 수가 확대되고 있는 소규모 서점들은 대형 서점이나 기존 출판사에서 제작한 일반 단행본 서적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독립서점이라고 불렸을 때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게 되었다. 덧붙여 이들 서점들은 대개 서점이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 커뮤니티와 독서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들은 독립서점과 구분되는 의미로 ‘동네책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새로 생겨난 소규모 책 공간들이 ‘서점’ 아닌 ‘책방’으로 자신을 명명하는 것도 나름의 차별화 이유가 있다. 서점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즉 문화 공간으로서보다는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유통의 공간이라는 상업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하지만 ‘책방’이라는 명칭에는 상업적인 영업 공간의 의미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모여드는 사랑방과도 같은 온정적이고 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동네책방을 창업하는 이들이 대개 돈을 벌기 위한 개인 사업의 수단으로 서점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문화예술 공감대를 나누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기에 그런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기 위해 서점 대신 책방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책방’이라는 이름도 통용되고 있다. 이는 대형 서점이나 기존의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는 지역 중형 서점과 달리 공간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작다는 건 단순히 공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작은책방’은 대형, 대자본의 논리를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작고, 낮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한다는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다.

‘동네서점’이라는 용어도 혼용된다. 이처럼 명명하는 이름 자체가 다양하듯 독립서점, 동네책방들이 담고자 하는 역할과 의미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서점의 수가 늘어나면서 2019년에는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140여 개 책방들이 협의체를 꾸려 공동의 가치와 지향점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며 협업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지역 주민과 독서 공동체를 꾸리는 커뮤니티형 동네책방

독립서점은 커뮤니티다. 지역을 기반으로 취향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여 삶과 문화를 나누는 공간. 그러므로 밀착 접촉이 필수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엔 없고 동네책방에만 있는 것. 그건 바로 눈과 눈을 맞추고 손을 맞잡고 몸과 마음의 온기를 나눔으로써 고단한 삶에 위로와 위안을 갖는 것이다. 관심사가 같은 책을 함께 읽고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세상엔 나와 다른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 바로 이 점이 비록 교통이 불편한 골목길에 있어도, 찾아가기 힘들어도, 편히 앉을 곳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작아도, 동네책방을 사랑하고 찾는 이유일 것이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선 결코 해 줄수 없는 이런 것들이 동네책방의 존재와 성장의 이유였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런 동네책방의 장점을 모두 앗아가 버렸다.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으면 안 되고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수이며, 손을 맞잡는 스킨십을 배제하는 코로나 시대에 동네책방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

졌다. 책방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책을 읽지 않는 건 아니니, 대신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지난 십 년, 도시와 지역 곳곳에서 뿌리를 내려 가던 동네책방들에 생기가 사라졌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혹은 사람이 찾지 않으니 의미를 잃어버려 문을 닫는 책방들이 늘어 가고 있다.

동네책방이 사라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자는 자본주의 무한 경쟁 시대에 경쟁력 없는 업종은 도태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반문한다. 그러나 책방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동네의 구멍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동네책방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회 소수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일 것이다. ‘독재 정치’가 소수 지배 권력이 일방적으로 다수 대중을 통치하는 것이라면, ‘민주주의’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서로 목소리를 내며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이끌어 내는 제도다.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면 플랫폼 혹은 스피커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출판이다.

현대사회의 거대 상업 언론은 이미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보수화

되었고 사회 구석구석의 소외된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하지 않는다. 대기업 출판사 역시 마찬가지다. 철저히 상업적 가치로 책을 만들고 대량 판매를 위해 사회 다수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책들을 출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살아남아 성공하는 법,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는 법, 혹은 사회의 불편한 진실에는 눈을 감고 평범한 자기만족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소확행의 삶을 담은 책들을 출간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함으로써 사회를 일원화시키는 역할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회 주류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곳들이 작은 출판사들이다. 이들은 동물권, 환경과 생태, 젠더, 장애 등 사회 주류가 외면하기 쉬운 가치들을 출판으로 담아낸다. 당연하게도 베스트셀러와, 광고를 제공하는 대형 출판사 도서를 핵심 자리에 배치하는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이들 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매우 적다. 이런 출판사들이 동네책방의 출현으로 힘을 얻고 있다. 동네 작은책방은 작지만 소중한 가치가 담긴 책을 전시하고 토론하고 판매함으로써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돕고 있다.

작은 출판사와 동네책방들이 살아남는 세상은 건강한 사회다. 우리 사회가 기득권, 가진 자, 배운 자, 주류 중산층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고

낮은 자, 약자,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평등과 복지를 구현한다면, 갈등과 분쟁은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동네책방은 그런 민주주의와 평등 사회의 최전선, 풀뿌리가 자리 잡는 공간이다.

이런 동네책방이 단순히 자본의 논리에 의해 사라져 간다면 결코 사회 전체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동네책방을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동네책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전자상거래 대기업을 겨냥한 규제를 확대했다. 소규모 서점의 영업을 돕기 위해 도서 배송료 하한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아마존과 같은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정도로 독점력을 키우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⁹⁾

최저 배송료 제도는 아마존 같은 ‘공룡’이 꼼수를 썼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온라인 서점이 가격 할인에 사은품을 주면서 배송까지 무료로 해 줌으로써 동네책방이 궤멸될 위기에 이르자 온라인 서점들이 무료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랬더니 아마존은 무료 배송 금지 규

9) 양효경. (2021.11.2). 아마존 ‘꼼수’ 막아라...프랑스가 동네 서점 살리는 방법? MBC.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311733_34880.html.

제를 우회하려고 우리 돈 약 8,200원 정도인 배송료를 14원까지 낮추는 꼼수를 썼다. 실질적으로 무료 배송을 한 셈이다. 이걸 막기 위해 배송료 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가디언은 이번 조치를 ‘문화적 예외주의의 일부’로 해석했다. 프랑스가 오래전부터 책과 책방을 시장 방임주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프랑스가 적용하고 있는 도서 정가제, 할인율 상한제, 무료 배송 금지의 효과는 크다. 가디언은 이들 제도 덕분에 자영업자의 서점 3,500곳, 일자리 1만 2천 개가 보존됐다고 보도했다.¹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노력하고 있다. 울산시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네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4주 안에 읽고 울산도서관 및 9개 공공 도서관에 내면 구매액 전부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환불해 주는 사업이다. 보도에 따르면 14세 이상 시민 누구나 월 2권씩 이용할 수 있는 이 사업에 2021년 7월 한 달 동안 1,098명이 동참, 1,735권을 이용했다.¹¹⁾

경기 광명시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도서관에

10) 양효경. (2021).

11) 박은경. (2021.8.27). “동네서점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너도나도 동네서점 살리기.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2615580005161>.

없는 책을 동네서점에서 빌렸다가 반납하는 제도다. 신간 도서를 빨리 받아 보고 싶은 독자는 가까운 서점을 이용해 편하고 빠르게 책을 볼 수 있고, 도서관 장서 예산을 통해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동네 책방 매출에도 일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경기도 용인시, 부천시, 충북 청주시, 제천시, 음성군과 옥천군, 전북 남원군 등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9년 이후 발행된 도서를 동네서점에 가져가면 해당 도서 정가의 50%를 도서교환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시는 도서관 이용 실적에 따라 쌓인 포인트로 동네서점에서 책 구입비의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이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서점 인증제’ 또는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동네서점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인 배경엔 독서량 확대, 동네서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도 이유가 또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동네 책방의 가치에 공감했다는 뜻이다.

동네책방과 함께 성장하는 시민들, 독서 공동체

동네책방의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 가고 있는 게 바로 모여서 함께 책을 읽는 독서 동아리, 북클럽이다. 책을 읽고는 싶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를 때, 혹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나누고 시선을 넓히고 싶을 때 함께 모여 읽는 건 큰 도움이 된다. 정기적으로 모이다 보면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의무적으로 책을 읽게 되고, 완독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의 독서에 힘입어 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지인들이 모여 일상적인 수다를 나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책을 읽었다는 성취감, 뚜렷한 주제를 두고 일관된 이야기를 풀어 감으로써 이웃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론 한 권의 책을 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인생의 상처나 아픔을 이야기함으로써 공감과 위로를 받기도 한다. 책으로 맺어진 우정은 힘이 세다. 대개 책방마다 한두 개 이상 책 읽는 모임이 있고, 심지어 어떤 책방은 아예 독서 모임을 위해 만들어진 곳도 있다. 이런 책방

에서는 일주일 내내 구성원과 내용을 달리해 가며 독서 모임이 열린다.

독서 모임은 개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더 많은 독서, 더 넓은 독서로 유도한다. 동시에 책방은 고정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영업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연대체로서 발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낮은 독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혼자 하는 독서는 힘들고 읽는 이를 지치게 하기 쉽다.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함께하는 독서가 힘이 된다.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깊고 더 넓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책을 읽지 않는 이들에게는 새롭게 독서 세상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런 독서 모임은 특정 개인이나 소규모 모임의 힘만으로 지속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독서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전국민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더 많은 독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다.

독서를 통해 성장한 개인은 민주사회의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다. 나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알고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이해하는 사람. 시장 권력과 힘의 논리에 밀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내 삶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키워 가는 사람. 때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타협하고 융화하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일 것이다. 이런 시민을 키우는 게 바로 사회적 독서다. 동네책방은 개인의 상업 공간이지만 동시에 이런 사회적 독서를 확대하고 민주 시민을 키워 낼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문화공간이기에 다른 업종과 달리 정책적 보호와 지원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 하나의 책방을 넘어서 살아 있는 책들의 고향이 될 책마을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당위도, 지역 문화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동네책방의 존재 이유도 이렇게 분명하지만, 아무튼 현실은 종이책의 쇠락과 오프라인 서점의 쇠퇴를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어느 날 갑자기 독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리도 없거니와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디지털 기술은 더욱더 발전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정책적 지원에만 기댄 산업은 언젠간 무너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책을 사랑하고, 책과 관련된 문화를 즐기고, 책을 매개로 한 독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미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십 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품고 대안을 찾아 떠난 길이 유럽 책마을 여행이었다. 1990년대 이후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부동산 폭등과 디지털의 영향으로 책방과 출판사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농촌은 농촌대로 사람들이 없어서 마을이 공동화되어 가는 현상이 심해졌다. 이때 책을 사랑하는 이들과 농촌 살리기 정책이 결합돼 시골 마을 곳곳에 ‘책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이어졌다. 그 결과 유럽 전역에 약 30여 개의 책마을이 조성되어 있다는 글을 읽고 그곳을 찾아 떠났다.

37일 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와 영국 4개국을 돌며 주요 도시의 도서관과 서점, 시골 책마을을 여행하고 돌아왔고 그 기록을 책으로 엮어 펴내기도 했다.

유럽 책마을의 시작은 영국 ‘헤이온와이(Hay-on-Wye)’다. 1961년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한 리처드 부스(Richard Booth)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뜻을 거절하고 고향으로 와 헌책방을 연다. 주민들이 떠나고 몰락한 시골 마을에 커다란 창고를 사들여 영국 전역에서 헌책들을 수집해 왔다. 이어서 지금은 폐허가 되다시피 한 마을의 유서 깊은 ‘헤이성’을 사들여 이를 복원하고 그곳을 서점으로 만들었다.

지역 주민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20만 권의 책으로 가득한 이 고성온 골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명소가 되었다. 언론에 회자되고 관광객들이 모여들자 마을은 활기를 찾았다. 카페와 식당, 예술가의 공방, 작업실과 서점이 줄줄이 문을 열었고 지금 그곳은 30여 개의 다양한 책방들이 자리한 성공한 책마을이 되었다.

헤이온와이 책마을의 성공에 힘입어 주변 국가 농촌 마을에서도 책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 약 20여 곳의 책마을이 생겨났다. 나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름다운 책마을이 있었으면 했다.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은 심각한 상태다. 2020년 인구조사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인구의 50.2%가 서울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지금도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 농촌 마을의 몰락은 심각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방 소멸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은 교통과 환경오염, 부동산 문제 등 갖은 폐해를 낳는다.

소멸되어 가는 시골 마을을 살리기 위해 정보화 마을, 체험 마을 등 예산을 투입해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책문화마을’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십년이 지난 지금, 전국에 내가 꿈꾸었던 ‘헤이온와이’와 같은 시골 책마을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시골 마을도 이제 벼랑까지 몰려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폭발 직전인데 농촌에서는 사람 그림자 찾기가 힘들다. 시골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 어찌다 들에서 만나는 젊은 여성은 모두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한국의 농촌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다. 한 해 동안 품 팔아 기껏 지은 쌀농사는 밥을 먹지 않는 도시인들 때문에 농협 창고 안에 쌓여만 가고, 애써 키운 소와 돼지는 반복되는 구제역으로 살처분되어 땅마다 파묻힌 동물들의 핏방울이 지하수로 섞여 들고 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과연 농촌 사람들만의 현실일까? 그게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빵과 스파게티를 먹으려 홈쇼핑을 즐기는 도시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 누구나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처럼 평생 도시에 서 나서 도시에서 자라 시골에 빚지고 있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우리, 사라져 가는 작은 마을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시골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죽음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¹²⁾

한적한 농촌 마을에 서점을 열고 8년. 수많은 이들이 찾아왔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친구가 되었고 또 많은 이들은 우리처럼 동네책방을 열었다. 그렇게 지난 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동네책방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고 수많은 독서 공동체들이 생겨났다.

12) 백창화, 김병록. (2011).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서울: 이야기나무.

아무도 찾지 않을 것만 같았던 외딴 시골 마을 작은책방에서 해마다 수 천 명의 사람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한 나는 여전히 꿈을 꾀다. 살아 있는 책들의 마을에 대한 꿈이다. 적어도 그곳은 나와 너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위화감을 불러오거나 계급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곳. 많은 돈을 벌어 더 큰 집과 더 큰 승용차를 사는 걸 삶의 목표로 삼고 나날이 더 많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내보내는 그런 삶을 거부하는 곳.

작은 집에 살고 적게 일하고 적게 먹으며 가벼운 몸으로 매일매일 책 한 권을 읽고 이웃들과 읽은 책을 이야기하고 삶의 비망록을 쓰면서 살아가는, 밤하늘 별을 올려다보고 시를 외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 그런 곳, 아름다운 책마을을 나는 아직도 꿈꾸고 있다.

‘들판 소나무 숲 그늘 아래 작은 초가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돌보아 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가서 벗단 지어 날라 주고
 남쪽에 죽어 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북쪽에 싸움이나 소송이 있으면 별 거 아니니까 그만두라 말하고’¹³⁾

칭찬도 받지 않고 미움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책과 함께 살아
 가는 아름다운 시골 책마을. 디지털과 메타버스의 시대가 와도 나는 피
 가 통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얼굴을 어루만지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
 곳에 살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책과 문화의 마을이 우리나라 곳곳에 꼭
 생겨났으면 한다. ✽

13) 미야자와 겐지 시. (2015). *비에도 지지 않고* (엄혜숙 역). 서울: 그림책공작소.

책을 읽지 않는 시대,
책의 귀환이라는 기현상

안 병 일

책방시점 대표

패션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곤 합니다. 때론 ‘레트로(retro)’, ‘뉴트로(newtro)’라는 이름으로 문화나 생활 양식 등 옛스러운 무엇인가가 지금 이곳에 다시 호출되곤 하죠. 하지만 한 번 내리막길에 접어든 특정 업종이나 분야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저는 대표적 사양산업인 책방(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마주하는 질문의 8할은 “이 일 해서 먹고 살 순 있냐?”입니다. 서점만큼 소비자가 사업자를 걱정하는 업종이 있을까 싶습니다.

책과 서점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독서인구(연간 1권 이상 책을 읽은 인구의 비율)는 2009년 62.1%에서 2019년 50.6%로 연간 독서량은 2009년 17.4권에서 2019년 14.4권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¹⁾ 17.4권이라는 평균을 다시 따지고 보면 10대 청소년이 절대적인 독서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 통계청 보도자료. (2019. 11. 25). 2019년 사회조사 결과. <https://kostat.go.kr>

성인의 독서량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은 사실 독서인구 통계 평균 수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는 독서광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서점인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서점 역시 지속적인 독서인구 감소와 온라인 시장의 등장 여파로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서점연합회가 2년마다 펴내는 『서점편람』에 따르면 전국의 서점 수는 2003년 3,589곳에서 2005년 3,429곳, 2007년 3,247곳, 2009년 2,846곳으로 감소했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19년엔 1,976곳으로 줄었습니다.²⁾ 16년 사이에 반토막 가까이 난 셈인데, 학창시절의 추억이 깃든 서점을 여전히 만나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통계 수치만 보면 책과 서점은 확실히 사양산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역행하는 현상이 데이터로 감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전통적인 서점이 급감하는 사이 독립서점 등 기존과 결이 다른 형태의 서점은 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2015년 이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독립서점 데이터 기반 콘텐츠

2)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20). 2020 한국서점편람. 서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츠를 발굴하는 주식회사 동네서점(구 퍼니플랜)이 발표한 ‘동네서점 트렌드’에 따르면 2015년 97곳이었던 독립서점은 2016년 180곳, 2017년 283곳, 2018년 416곳, 2019년 551곳, 2020년 634곳으로 5년 새 6.5배 증가했습니다.³⁾ 두 번째로 출판사 등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출판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8,170곳이던 출판사는 2020년 67,203곳으로 9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⁴⁾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책을 다루는 출판사와 독립서점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다양성’이라는 관점으로 이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3) 동네서점 트렌드 2020. (2020). 주식회사 동네서점. <https://market.bookshopmap.com/bookshopmap-trend-2020>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 KPIPA 출판산업 동향(2020 하반기).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https://www.kpipa.or.kr>

서점 몰락 시대를 역행하는 독립서점 전성시대

2000년대 초반까지 서점은 동네 혹은 상업지구의 핵심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는 지식 공간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대형 서점은 어느 지역이건 가장 목 좋은 상업 공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춘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았던 저 역시 학창시절 주된 약속 장소는 명동 입구 청구서적 앞이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과 다양한 대체 콘텐츠와 그것을 담는 플랫폼의 출현, 이에 맞물린 독서인구 감소 여파로 서점은 확연히 사양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추억하던 대부분의 서점이 사라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현상은 특히 고령화가 심한 지역으로 갈수록 뚜렷해집니다. 『서점편람』에 따르면 서점 멸종 예정 지역(서점이 단 한 곳만 남아 있는 기초 지자체)이 전국에 42곳인데 강원 고성, 전북 무주, 전남 강진, 충북 옥천, 경북 고령, 경남 함안 등 대부분 고령화가 심한 인구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조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2015년을 전후해 이 흐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독립서점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2015년 100곳 미만이었던 독립서점은 2020년 634곳으로 늘었습니다. 저도 2019년 강화에 서점을 열었으니 이 대열에 동참한 셈입니다. 있던 서점도 문을 닫는 마당에 무슨 용기로 새로운 서점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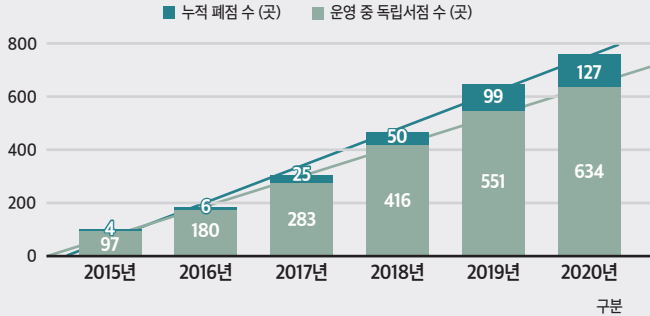
우선 이 현상을 파악하려면 독립서점에 대한 정의부터 필요합니다. 명확한 기준이나 인증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독립서점을 규정하는 것은 저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좁게는 독립출판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일반 도서를 판매하는 곳은 독립서점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최근에는 독립출판물도 정식으로 출판사 등록을 통해 ISBN을 발급해 대중 시장에 진출하는 등 그 경계 자체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의 의미를 자본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넓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음악, 영화계에서 이른바 ‘인디’를 규정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취급하는가’로 구분하기보다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본과 유통망에서 자유로운, ‘서점 운영자의 자율

성과 취향'이 반영된 공간을 독립서점으로 규정하는 편입니다.

독립서점은 전통적인 방식의 서점과는 결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서점의 운영방식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 서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 간행물과 참고서, 문제집 등 종합서적을 두루 취급했습니다. 기존 서점의 주 수익은 서점 내 도서 판매와 납품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더 큰 경우 문구류와 음반을 함께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판매했으며, 도서의 분류는 전통적인 십진분류법을 따랐습니다. 앞서 독서인구 통계를 언급했는데 평균 독서량의 상당 부분은 10대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습지와 문제지, 청소년 도서는 기존 서점의 주요 판매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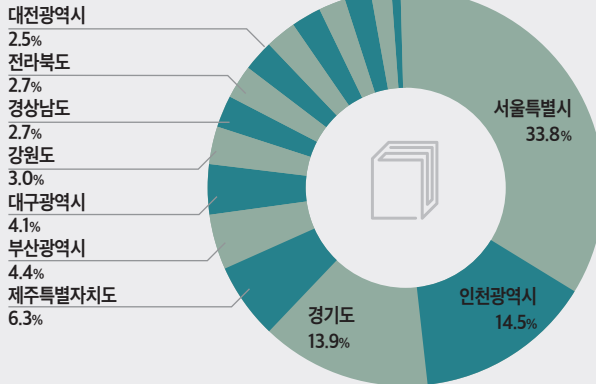
전국 독립서점 증감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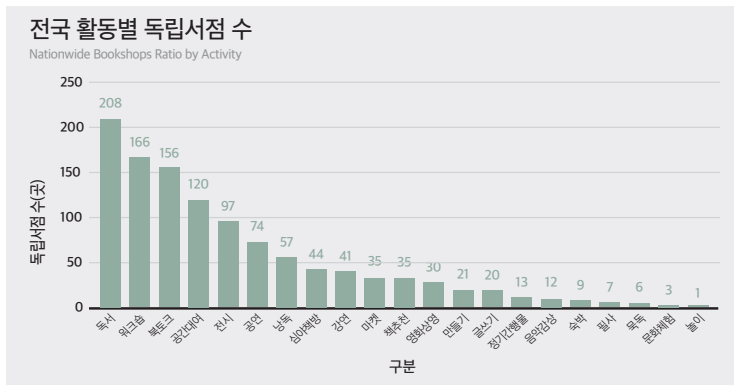
Nationwide Bookshops Trend



전국 지역별 독립서점 수

Nationwide Bookshops Ratio



독립서점의 증감 추세 및 형태별 운영 현황⁵⁾

출처: (주)동네서점

그에 반해 독립서점은 운영자의 취향과 전문성,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점의 명칭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동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형 책방(광주-동네책방 숲)⁶⁾, 협동조합 형태(찜오책방), 북스테이(괴산-숲속의 작은 책방), 독립출판물 취급(헬로인디북스), 여행이나 사진 등 특정 분야만 전문으로 다루는 큐레이션 책방(스페인책방), 상담 또는 책 처방(사적인

5) <https://market.bookshopmap.com/bookshopmap-trend-2020/>

6) 괄호 안은 예시입니다.

서점)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죠. 제가 있는 강화도의 경우에도 7곳의 서점이 있는데 그림책, 북스테이, 생태 및 시집 전문 등 각기 다른 정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변화가 통계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점편람』에서도 2019년부터 학습지와 참고서를 팔지 않는 독립서점을 기타 서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운영 중인 독립서점의 정확한 현황이 통계에 반영된다면 전체 서점 수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수익원 및 공간 운영의 다각화입니다. 책은 판매 및 보관 면적이 많이 필요한 데 반해 갈수록 유통 기한은 짧아지고, 그마저도 판매량을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기업이 아닌 개인 또는 가족 등 소규모로 운영되는 독립서점은 기존 서점과 달리 운영자의 취향과 정체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납품 시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서 납품은 예상 수익이 확실한 대신 서점 간 경쟁이 치열하고 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전담할 인력이나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독립서점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근 지자체

마다 조례 등을 통해 지역 서점 이용을 촉진하면서 비정기적으로 200만 원 안팎의 소액 납품 의뢰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 납품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를 고정적인 수입으로 삼지는 않기에 독립서점 중 상당수는 자발적 납품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수익원의 경우 도서 판매와 더불어 카페, 주점, 북스테이(숙박), 전시, 공간 대관 등 다른 업종을 겸하는 복합형 서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서점이 갖는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고민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도서 판매 외 다른 업종을 겸하는 복합형 서점이 많다 보니 개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공간에 서점을 쏙인 쏙(shop in shop) 형태로 차리거나(서울-아직 독립하지 못한 책방) 주거 공간을 일부 개조해 운영(대부분의 북스테이 책방이 이에 해당), 독서 모임이나 원데이 클래스 개최 등 커뮤니티 공간을 겸하는 등 공간 운영도 다양한 편입니다. 최근엔 차량을 활용해 다른 상업 공간과 협업하는 이동식 책방(북다마스)도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점 대표의 역할 변화입니다. 기존 서점의 경우 도서 판매 및 재고 관리, 납품 등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표가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직원들을 적절히 채용하는 게 중요

했습니다. 반면 독립서점 대표는 ‘N잡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대표의 취향과 서점의 정체성 자체가 독자적인 브랜드로 인식됩니다. 때문에 어떤 책을 고르고 맥락에 맞게 진열할 것인지, 즉 큐레이터로서의 역량이 서점의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규모가 작고 도서 판매만으로는 안정적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독서 모임 및 북토크 등 자체 프로그램 기획과 고객 관리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점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자체 또는 유관 기관의 지원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터라 프로젝트 기획자로서의 역량과 역할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점의 브랜딩, 프로젝트 홍보 등 마케터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판사는 왜 10년 새 3만 곳이 늘었을까?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체 콘텐츠 플랫폼의 거센 공세 속에 책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출판사는 반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증가세가 아니라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선 출판사 급증의 명암을 살피기보다 왜 그런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출판 시장의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출판사 21세기북스에서 김예지 작가의 『저 청소일 하는데요』라는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은 앞서 작가가 자비를 들여 소량 생산한 ‘독립출판물’로 독립서점에서 입소문을 타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역시 독립출판물로 나왔다가 이를 주목한 편집자가 정식 출판사를 등록하고 출간했습니다. 이슬아, 서굴, 김봉철 등 독립출판계에서 주목받던 작가들이 대형 출판사를 통해 정식 출판등록을 하는 사례도 이

제는 낮설지 않습니다.

2012년 시작한 유유출판사의 경우 독립서점 애호가와 월 3~4권 이상 책을 읽는 독자층을 적극 공략해 가장 성공한 1인 출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세 출판사는 ‘아무튼’ 시리즈를 함께 출판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독립서점을 중심으로 탄탄한 수요층을 확보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45권을 펴냈습니다. 1인 출판사, 소형 출판사들이 독립서점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자 문학동네와 민음사 등 굵직한 출판사들도 동네서점 에디션 제작, 별도 주문 페이지 개설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북토크 공동 기획 등 상호 교류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독립 출판물의 ‘오버그라운드(over-ground)’ 진출입니다. 초창기의 독립 출판물 제작자들은 대개 자비 출판 또는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제작비 투자를 받아 책을 만들고 직접 독립서점에 입고 요청부터 판매, 유통까지 관리했습니다. 때문에 ISBN(국제표준도서) 등록 등 정식 출간물 등록을 위한 절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립서점과 독립 출판물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며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펍 같은 독립 출

판물의 온라인 판매, 유통 플랫폼이 등장했고 인스타그램,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온라인 판매도 활성화됐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창작자가 직접 출판사를 설립하고 정식 ISBN 등록을 거쳐 온/오프라인, 언더/오버그라운드에서 구애받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슬아작가는 헤엄출판사를 차리고 이후 자신의 창작물을 이 출판사를 통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 출판물 창작자 스스로 저작물에 대한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봐야 합니다.

책이라는 허블 망원경

우리나라의 출판 시장이 생긴 이래 호황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자조 섞인 말을 너무나도 자주 듣곤 합니다. 왜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책이 다른 매체나 플랫폼에 비해 재미없고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TV마저 사양산업이 되는 시대, 이러한 관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책이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 문해력, 리터러시(literacy)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글보다 영상에 익숙해 문자 해독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저는 단순히 해독력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글을 많이 읽어 기술적으로 해독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제도와 문화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존재인 동시에 각자 다른 화두

와 고민,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나 외의 다른 누군가는 기본적으로 이질적이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터러시는 이러한 서로의 차이와 간극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 공감하고 협력하려는 과정, 그러니까 인류가 출현한 이후 계속 고민하고 키워온 힘인 셈이죠. 우리는 책을 통해 나와 다른 세계, 내 바깥의 세계를 처음 만나고 비로소 그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재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제가 책을 사랑하는 까닭은 책이 허블 망원경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각자는 소우주이고 우리는 책이라는 허블 망원경을 통해 다른 세계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들여다보기 전까지 타인은 그저 저 멀리 존재하는 먼지일 뿐이죠. 망원경 자체엔 어떤 진리나 정답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책이라는 망원경을 통해 서로 다른 소우주와의 조우, 충돌, 이해, 재해석(공감과 비판을 동반한)하며 자신을 성장시켜 갈 뿐이죠. 저는 각자의 우주를 유영하는 존재들의 기록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의 사소한 기록에는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질문과 고민이 담겨 있고, 이는 결국 다시 나를 향합니다. 저는 책이라는 허블 망원경의 쓸모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망원경은 간절히 원하는 어떤 해

답을 주진 못하지만 여기에서 만난 각자의 이야기와 고민, 질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나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는 현상과 그 책을 찾는 사람들의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책이라는 세계와 서점이라는 우주, 그곳을 찾는 사람들

앞서 독립서점의 증가와 독립출판을 중심으로 한 출판사의 양적 성장 현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그 현상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양성이라는 필터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만약 한 사회의 다양성을 척도화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의 수준은 어떨까요?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탐사 현장을 서점으로 국한한다면 어떨까요? 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 책방 이야기를 잠깐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책방은 관점과 질문, 발견이라는 세 가지 주제 중심의 큐레이션 책방인 동시에 북스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 주제와 관련한 15개 안팎의 세부 항목(일, 취향, 죽음, 가족, 꿈꾸는 세계, 동물권, 페미니즘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1,700여 종의 책을 고르고 진열하는데요. ‘일’ 같은 특정한 항목만 해도 일에 대한 철학적 고찰부터, 논쟁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책, 노동시장 개혁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책, 보통 사람들의 자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까지 수천여 권의 책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책의 세계는 넓고 다양합니다. 지난 2년간 ‘일’ 섹션에서 가장 사랑받은 책은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허혁, 수오서재), 『이 별에서의 이별』(양수진, 싱긋), 『저 청소일 하는데요』(김예지, 21세기북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먹고 사니즘』(이혜민, 900km)이었습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바로 내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 있습니다.



책방시점 전경
출처: 필자 제공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책은 느린 콘텐츠입니다. 잠깐 책장을 들춰 본다고 해서 책의 가치를 알아볼 순 없습니다. 오래 머물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 정답을 얻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큐레이션하는 책들도 대개 자신을 향한 질문, 솔직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책방에서 책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삶이 담긴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때로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기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출판사가 다양해지고 이제는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세계의 모습도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책 하나가 각자의 세계를 담고 있다면, 서점은 그 세계가 가득 담긴 하나의 우주이자 여러 형태의 다양성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점점일 것입니다. 서점 또한 각자의 관점과 취향을 반영하는 소유주인 동시에 그 스스로도 하나의 책이기에 서점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새롭고 다양한 세계를 접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서점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접한 위치의 비슷한 상업 공간은 경쟁 관계이기 마련인데 서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

약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바로 옆에 편의점이 들어온다면 큰일이 나겠지만, 서점은 오히려 환영을 하는 낯선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납품을 경쟁하는 사이라면 달라지겠지만). 김포 지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에 가장 먼저 문을 연 꿈틀책방의 단골 고객들이 지난해 잇따라 같은 김포 지역에 책방 짙은, 코뿔소책방 등 각자의 서점을 열었습니다. 단골이 떠나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됐으니 트러블이 생길 법도 하지만 이들 책방은 김포 동네책방 네트워크를 꾸려 ‘동네책방 스탬프 투어’ 등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저는 서점이 많이 생길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각자 다른 관점과 취향, 다른 세계의 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독립서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역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을 재조명하고 서점을 거점으로 새로운 지역 콘텐츠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제주도의 경우 100여 개에 가까운 지역 독립서점이 생겼고 광주와 전주, 강릉 등에도 독립서점이 증가하면서 서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지역 기반 기획(제주책방예술제, 전주동네책방문학상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화를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독립서점의 등장과 새로운 시도는 분명 문화적 다양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책과 서점, 독자를 통해 구체화된다

2015년 무렵 전국의 특색 있는 서점 여행을 하면서 언젠가 ‘나만의 서점’을 열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마침 2016년 서울 상암의 북바이북이라는 독립서점에서 서점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열려 4주 동안 참여했습니다. ‘술 먹는 책방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엔 저를 포함해 서른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이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경기 서점학교’를 개설하는 등 예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독립서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겠지요? 자신이 가진 콘텐츠와 책을 접목한 공간을 열고 싶은 사람, 책을 통해 삶의 궤적이 달라진 사람 등 서점 창업 동기는 다양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동력은 도서 정가제와 가치 소비라고 봅니다. 동시에 이 두 동력은 책과 서점을 통한 다양성 있는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 정가제는 온라인 서점과 대형 마트 등에서 무분별한 도서 할인

을 통해 무너진 공정 경쟁 시장을 회복하고 양질의 도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당시 출판계는 할인 경쟁으로 정작 콘텐츠의 질은 황폐화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가를 발굴하고 비용을 투자해 좋은 책을 만드는 것보다 책의 단가(제작비, 고료 정산 등)를 낮추는 것이 이득일 테니까요. 더불어 가격 경쟁에서 밀린 서점들이 줄도산하며 출판 시장은 악순환(자본력이 있는 대형 출판사, 베스트셀러 중심의 다양성 훼손, 대형 온라인 서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출판사로 피해 전가 등)하며 결국 피해는 독자가 보는 형국으로 전개됐습니다.

현행 도서 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정가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어느 곳에서나 같은 값에 판매하되 자율적으로 최대 10% 할인, 5%까지의 적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료 배송, 이벤트 등을 통해 온라인 서점이 우월적인 상황이긴 하나 최소한의 경쟁 토대는 마련된 상황입니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앞서 도서 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단순히 출판계의 이른바 파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도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국 곳곳의 서점을 통해 모든 독자가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행히 도서 정가제가 정착하며 작가와 독립서점, 독자 사이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그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엔 기꺼이 가치 소비를 하는 독자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이를 존중하는 이용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일 테니까요. 독립서점을 열고 3년 가까이 운영하며 만난 독자들은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를 응원하기 위해 책을 구입하고, 동네와 로컬 독립서점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책 구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존재와 영향력은 앞으로 쉽게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겠지만 한국의 출판 시장을 더 다양하고 의미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각자의 다양성이 더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다면 혹은 그런 사회의 모습을 한발 앞서 보고 싶다면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여행하려는 곳의 독립서점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그 모습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

백창화

어릴 때부터 책과 도서관을 좋아했고 잡지 기자로 일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글로 써 왔다. 어린이·청소년 이 책과 멀어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2001년 살고 있던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었고, 충북 괴산으로 귀촌해 2014년부터 시골 마을 작은 서점인 '숲속작은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2011), 『작은책방 우리 책 쫓습니다』(2015), 『숲속책방 천일야화』(2021)를 썼다.

안병일

신문사 편집기자 생활 5년, 그리고 정말 좋은 일터에서 4년 동안 일을 했다. 그러다 진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 강화에 터를 잡았다. 그곳에서 2019년부터 서점과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공간 북스테이 '책방 시집'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2020)이 있다.

Diversitas List

-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락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중훈
-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승기
-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관은 불법법칙인가, 가법법칙인가? _ 서명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병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어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등우
-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요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대현
어디어장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 14호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켜는 흑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인영
- 15호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_ 이현정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_ 이수현
- 16호 생활론: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_ 조경숙
실내악,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_ 조은아
- 17호 다양성을 통해 이뤄 낸 고려의 최전성기 _ 김승수
텔레비전과 다양성: TV가 전달하는 다양한 가치들 _ 김설아
- 18호 장애의 사회·문화적 구성: 다문화 교육과 장애 _ 조주희
인간의 보편성과 다양성: 가치 획일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 _ 장대익
- 19호 성평등, 교실에 달다: 다양성과 예민함을 배우는 교실 꿈꾸기 _ 김수진
모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시작하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교육 _ 황대윤
- 20호 사회혁신이란 무는 다양성을 먹고 자란다:
내 안의 다양성, 내 밖의 다양성 _ 이혜영
엘리트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와 다양성의 필요성: 교육 복지 생태계를 중심으로 _ 이희연

다양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Diversitas PDF 버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diversity.korea.ac.kr/diversity/research/booklet.do>



Diversitas

권호 21호
발행일 2022년 2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www.saisiot.co.kr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